

출제문제

◇ 인문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모두 고려하여 주어진 그림을 설명하시오.

(900 ± 100자, 6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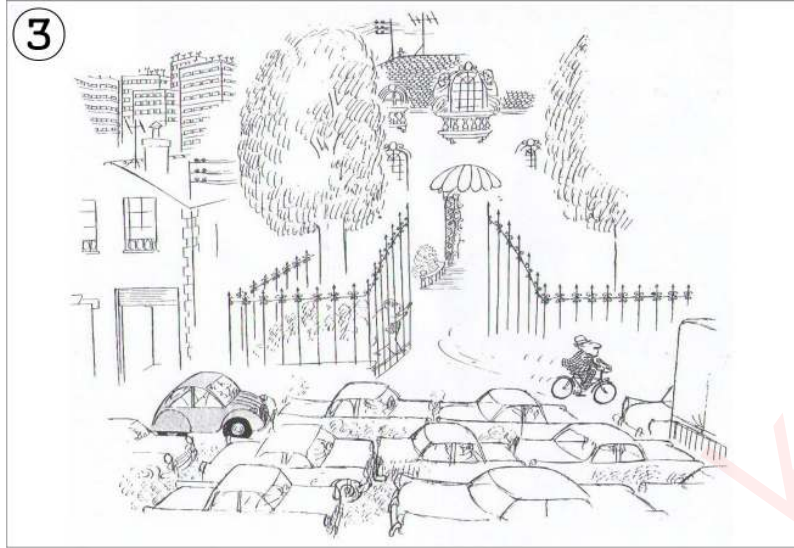
(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보고 자신도 덩달아 소비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를 ‘편승 효과’라고 한다. 이런 소비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소비를 무조건 따라하거나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대부분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곧,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은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소비의 이면에는 자신은 일반 대중과 다른 사람이라는 오만함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아 이것을 ‘속물 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개성 시대에 자신만의 차별성을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다만, 재화 자체의 효용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남이 같은 것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소비 방식을 바꾸는 것은 자칫 과도한 지출을 수반하는 비합리적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

(나) 「창세기」에서 욕망은 분명히 모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브는 뱀이 부추겨서 사과를 원하고, 아담은 또 이브를 통해, 다시 말해 모방의 연쇄 속에서 같은 대상을 욕망합니다. 카인의 아벨 살해에도 선망의 요소가 들어 있는데, 선망 역시 모방적 경쟁에서 비롯됩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탐내지 마라.”(「출애굽기」 20:17)라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모방적 욕망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금지된 욕망의 대상을 한창 나열하다가 멈추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욕망의 대상을 모두 나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에 속하는 것”을 욕망하지 말라는 마지막 계명은 그러므로 모방적 욕망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모방의 테마는 유일한 모델인 예수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언제나 하나님의 열 번째 계명이 암시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모방적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웃이 아니라 그 열 번째 계명을 모방하라고 권합니다. 모방적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당연히 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보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우리처럼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라면, 그가 우리의 이기주의를 모방했듯이 우리도 그의 이기주의를 모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모방자와 싸우고 경쟁하는 나쁜 모델들이 되고 맙니다.

(다) The instinct of imitation is implanted in man from childhood, one difference between him and other animals being that he is the most imitative of living creatures and through imitation learns his earliest lessons. No less universal is the pleasure felt in things imitated. We have evidence of this in the facts of experience. Objects which in themselves we view with pain, we delight to contemplate when they are reproduced with minute fidelity: such as the forms of the most ignoble animals and of dead bodies. The cause of this again is that to learn gives the liveliest pleasure, not only to philosophers but also to men in general whose capacity, however, of learning is more limited. Thus the reason why men enjoy seeing a likeness is that in contemplating it they find themselves learning or inferring, and saying perhaps, “Ah, that is he.” For if you happen not to have seen the original, the pleasure will be due not to the imitation as such but to the execution, the colouring, or some such other ca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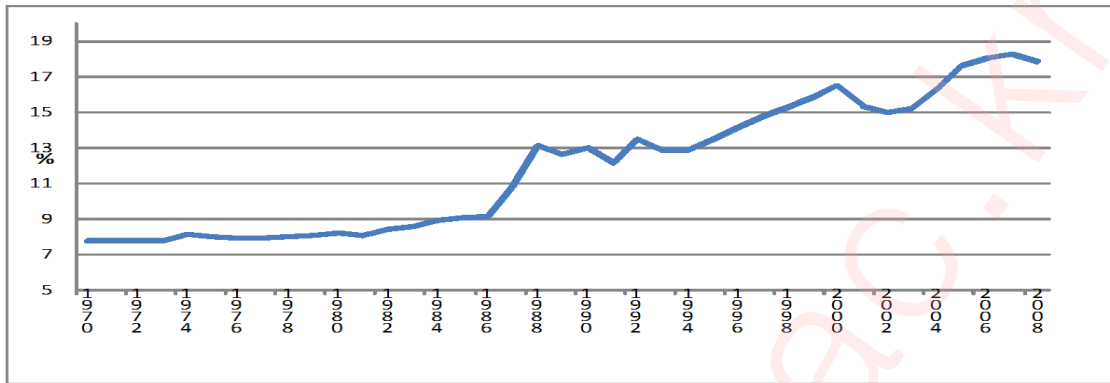
(라) 오늘날 패션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변화욕, 미적 감각, 걸치레를 좋아하는 것, 모방 본능 등과 같은 개인적인 동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동기들이 다양한 시대에 의상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패션은 개인적 동기가 아니라 사회적 동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패션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상류 계급이 하류 계급, 더 정확하게는 중간 계급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 지으려는 노력이 바로 패션을 구성한다. 패션은 끊임없이 해체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세워지는 장벽이며, 이를 통해 상류 세계는 중류 사회와 스스로를 차단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신분상의 허영심이 쳇바퀴 돌듯 하는 현상이 무한대로 반복된다. 한 집단은 뒤에서 쫓아오는 자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려고 애쓰며, 다른 집단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받아들여 그러한 차이를 다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현대 패션의 특징적인 양상이다. 먼저 패션은 상류 사회에서 기원하며 그것을 중간 계급이 모방한다. 패션은 위에서 아래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결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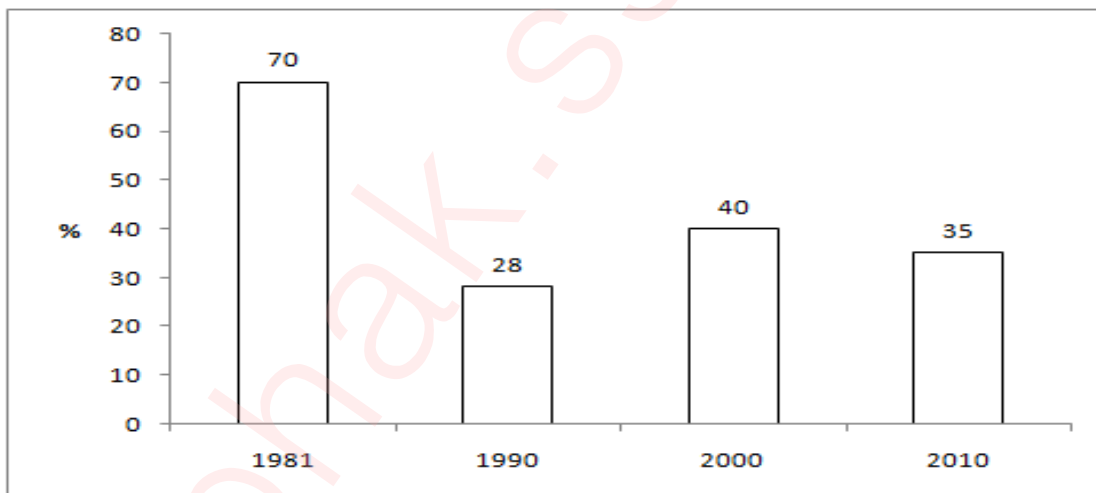
문제 2 제시문 (나), (다), (라)는 분배정의에 관한 글들이다. (나), (다), (라)의 입장에서 (가)의 현상을 해석하고 논평하시오. (1000 ± 100자, 40점)

(가) [그림 1] 미국 상위 1%의 소득점유율 변화*



*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 $\frac{\text{상위 1\% 인구의 소득 총합}}{\text{전체 인구의 소득 총합}} \times 100$

[그림 2] 미국 최상위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변화*



* 누진적 소득세 체계에서는 소득구간을 나누어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

(나)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정부는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입을 해야 한다. 공리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제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부는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주의에 대한 논의는 효용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회의 효용총량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이 때문에 현실사회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경제학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하여 분배정책의 방향을 수립한다. 첫째, 사회의 효용은 개인들의 효용의 합이고, 둘째, 모든 개인의 효용은 소득이 증가하면 동일한 양상으로 증가하며, 셋째, 소득증가에 따른 효용증가의 크기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한계효용체감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현실사회에서 이러한 가정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저소득자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사회의 총소득으로 사회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사는 한 사회에서 갑의 소득은 5백만원이고 을의 소득은 3백만원이라고 하자. 이때 이 사회의 총소득은 8백만원이다. 정부는 사회의 총소득을 가지고 사회의 효용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갑의 소득 5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거두어 을에게 주려고 한다. 이 경우 갑의 소득이 5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줄어들 때 감소하는 효용보다, 을의 소득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증가할 때 늘어나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의 총효용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경제학에서는 평등주의적 소득분배에 제한을 가하는 추가적 논의를 진행한다.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재분배로 인해 사회의 총소득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파이를 나누는 방식이 파이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령, 위의 예에서 정부가 자신의 소득 1백만 원을 거두어가는 경험을 한 갑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게 되어 다음달에는 4백만 원을 벌고 을의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면, 사회의 총소득은 8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런 경우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의 총효용도 감소하는 것이다.

(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상과 부담이 배분되는 방식은, 그것이 만일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사전에 정해진 의도에 따른 할당의 결과였다면, 많은 경우 아주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배의 몫은 어떤 과정의 결과이다. 그 과정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시장제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시장 메커니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전망을 확인해 주었기에 그 이후로도 지속되었다.

아담 스미스가 이해했던 것처럼, 모든 중요한 측면들에서 이것은 하나의 게임, 즉 부분적으로는 기술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과 전적으로 유사한 과정이다. 그것은 모든 게임과 마찬가지로, 목표, 기술, 지식이 각기 다른 개별 참가자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들에 따라 진행되고, 그 결과는 예측불가능하다. 또한 보통은 승자와 패자가 생겨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처럼 공정해야 하고 또 누구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기자들에게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 결과들은 부분적으로는 기술에 의해 또 부분적으로는 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사람의 서비스를 그의 동료들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자신의 활동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설계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라) 롤스가 주장하는 정의의 원리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정의의 두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초적 입장’이란,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에서의 위치를 모르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합리적 당사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분배원칙을 선택하는 가상적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아니면 적어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에만 경제적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각 개인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가장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

둘째, 그 같은 불평등은 기회 균등의 원칙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책이나 지위와 결부된 것이어야 한다
(기회 균등의 원칙).

◆ 출제문제 해설

◇ 인문

[문제 1]

1. 출제의도

이 문제의 의도는 글로 표현된 추상적 개념을 그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있다. 제시문을 이미지(그림)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능력을 겸해야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2. 그림과 제시문 해설

그림은 프랑스 만화가 생페의 작품이다. 그의 작품은 인간과 사회의 한 측면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여 가벼운 웃음을 선사한다. 현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생략한 정보만 제공하는 그림에서 수험생은 제시문과 호응하는 단서를 찾아 그림의 의미를 추론, 해석하면 일단 기본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세 컷의 그림은 일정한 줄거리에 따라 전개되는 서사를 지닌다. 서사의 시공간적 배경은 19-20세기 서양의 한 도시쯤으로 짐작된다. 그림의 배경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이야기는 꽤 긴 시간에 걸쳐 전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무가 성장하고, 하늘에서 전선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TV 안테나가 등장하고 주변 건물이 들어차는 과정이 묘사된 바, 이야기가 꽤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웃지간인 두 명의 등장인물의 집, 의상, 태도 등을 통해 좌측 인물은 하층민, 우측 인물은 상류층이라 단순화할 수 있다.

①번 그림에서 하층민은 상류층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본다. 자전거의 모양을 미루어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제품이며 따라서 부유층은 자전거의 실용적 가치보다 첨단 제품의 희귀성에 주목했으리라 짐작된다.

②번 그림은 시간이 흘러 비로소 하류층은 실용성이 증가된 자전거를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부유층은 자동차를 타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③번 그림은 하층민에게까지 자동차가 대중화된 시대에 하층민은 정제된 도로에 발이 묶인 반면 상층민은 대중과 달리 다시 자전거로 회귀한 상황을 보여준다.

* 그림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모방’ 욕망과 ‘구별짓기’이다. 참고로, ‘구별짓기’는 남들과 구별되는 차이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하고자 하는 욕망의 일종이다.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의 “합리적 소비” 부분에서 발췌한 제시문 (가)는 편승효과와 속물효과를 설명한다. 두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하층민의 경제 행위는 편승효과로, 상류층의 경제 행위는 속물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인간의 욕망이 모방적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문화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의 대답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대상은 남이 원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즉 좌측 하층민이 자전거나 자동차를 원하게 된 것은 저절로 생긴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측의 부유한 사람이 그 대상을 욕망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이러한 욕망 자체를 좌측 인물이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을 모방했다면 그것은 모방의 부정적 측면을

낱을 것이다. 하지만 제시문 (나)는 모방에 대한 긍정적 측면도 드러내기 때문에 두 시각을 균형 있게 파악한다고 해서 잘못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다.

제시문 (나)에는 모방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모두 암시되어 있다.

제시문 (다)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 (다)는 모방이 인간의 본성에 속하며, 인간은 모방을 통해 배움과 쾌락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라)에서 벤야민은 패션이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다른 계층과 자신을 차별화하려는 상류층의 의식 때문에 패션은 끊임없이 해체된다고 주장한다. 패션이 차별화의 허영심에 따라 “젓바퀴 돌 듯 무한대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일정한 방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에 적용하면 패션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상류층의 차별화 욕구에 따라 반복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문제 2]

- 출제의도

한 사회에서 바람직한 분배 상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중요하다. 한 사회에서 서로 다른 개인들 사이의 자원 분배 상태에 대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배의 상태에 가까워지기 위하여 정부가 자원을 어떻게 재분배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한 사회가 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분배와 재분배의 문제에 대하여 소위 분배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본 문제에서는 공리주의와 이에 기반한 공공경제학의 관점, 대표적인 시장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의 분배정의에 대한 관점, 그리고 롤스의 분배정의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소위 초고소득층(the super rich)이 시장에서의 소득을 과도하게 점유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소득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정한 소득세율의 설정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였다.

본 문제에서는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의 증가현상과 최상위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의 변화 추이에 대한 그림들을 제시하고, 이 현상에 대해 분배정의에 관한 세가지 이론적 입장들에서 해석하고 논평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분배정의론을 이해하고 이를 사회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013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출제문제

■ 대학명: 송실대학교

■ 모집시기: 수시2차

■ 전형명칭: 일반학생(논술)

■ 모집계열: 인문, 경상, 자연

■ 출제유형: 통합교과형

■ 개요

- 시험시간: 120분
- 출제문항수: 2문제
- 답안지 양식, 작성 분량: 원고지, 인문·경상: 800자 ~ 1,000자, 자연: 답안지 1면
- 지정된 필기구 : 볼펜만 사용 가능
- 수험생 유의사항:
 - ◇ 인문, 경상계
 - ①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말 것.
 -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 ③ 제시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할 것.
 - ④ 제시문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 ⑤ **검정색 필기구(볼펜 또는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그 이외 색깔 있는 필기구 사용은 부정행위임).
 - ◇ 자연계
 - ① **문제 1**의 풀이는 답안지의 **앞면**에만, **문제 2**의 풀이는 답안지의 **뒷면**에만 쓰시오.
 -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마시오.
 - ③ **검정색 필기구(볼펜 또는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 할 것(그 이외 색깔 있는 필기구 사용은 부정행위임).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

◇ 인문, 경상

요즘 논술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은 주어진 제시문을 실제로 다 읽기도 전에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갖가지 유형별로 분류된 문제들에 대해 답안지를 작성하는 반복 훈련을 거쳐 시험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제출된 답안지를 보면 그야말로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한 사람의 이해력, 분석력, 추리능력, 수리능력, 종합능력, 독서량 등을 두루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자칫 암기과목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송실대학교 논술시험은 첫째, 정해진 형식에 따라 답안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나름대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답안을 쓰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학생들의 이해력 및 창작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가급적 교과서에서 적절한 제시문을 찾아 인용하고 이 교과서 지문과,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밖의 제시문들을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순전히 글로 된 문장뿐만 아니라 각종 도표와 수식 나아가서는 그림에 대한 이해 및 해석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물음 자체를 글로 제시하기보다는 그림이나 도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읽어 내거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어렵거나 복잡한 도표와 그림은 제외하고 단순하되 그에 대한 해석은 단순할 수 없는 도표나 그림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셋째, 여러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답안작성이 가능한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즉 논술고사에는 정해진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 쓰면 그것은 틀린 답안이라는 것은 판별이 가능할 정도의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였다. 논술시험도 가급적 많은 독서량과 더불어 어떤 주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 자연계

출제문제 해설(p.27, p.29) 참조

■ 평가기준

◇ 인문 1 평가기준

수험생은 일단 제시문 네 개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모두 그림에 적용해야만 한다. 편승효과나 속물 효과처럼 부정적 소비행태를 설명한 제시문 (가)만을 적용하여 두 인물을 설명하거나, 욕망의 대상은 타자에서 유발된다는 욕망의 모방적 속성만으로 그림을 설명하면 감점요인이 된다. 특히 영어 지문을 활용하여 모방이 학습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간과 사회발달에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반드시 거론되어야 한다.

평가 등급 구간	평가 핵심 내용
1~2	제시문을 모두 활용하여 그림에 적용하고 동시에 창의적 해석을 덧붙인 경우. 이때 ‘모방’이나 ‘구별짓기’의 욕망이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거론되어야 함. 1등급과 2등급의 구별은 영어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나머지 제시문의 내용 파악이 잘 되었는가, 그림과의 연결이 온당한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
3~4	제시문을 모두 파악했으나 기계적 적용에 머물고 영어지문을 파악하지 못해 문제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4~6	제시문의 일부만을 그림에 적용하고 영어지문을 파악하지 못해 문제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6~8	제시문을 오독하거나 그림에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와 영어지문을 파악하지 못해 문제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8~9	문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경우.

(1) (가)의 <그림 1>과 <그림 2>의 현상을 잘 파악하였는가?

- (가)에서 제시된 미국의 분배상태와 소득세율의 변화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그림을 통해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래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약 8%에서 18% 수준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반면, 최상위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70%에서 35%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에서 1981년과 1990년의 경우는 레이건 행정부의 시작과 마지막 시기이고, 2000년의 경우는 클린턴 행정부의 마지막 시기이며, 2010년의 경우는 부시행정부의 거친 후 오바마 행정부의 시기임. 이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반면, 정부의 재분배적 개입은 오히려 감소되었음을 보여줌.
- 이 두 그림간의 관계에 대해 상관관계적 측면에서 그 관계를 이야기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를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설명하는 인과관계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임.

(2) (나), (다), (라)의 입장에서 (가)의 현상을 잘 해석하였는가?

- 각 입장에서 (가) 현상에 대한 해석을 평가할 때 고려할 점.
 - 각 입장의 논리를 단순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현상에 대한 해석으로 제시하여야 함.
 - 특히 (나)와 (라)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그 해석은 상이한 결론으로 나타날 것임. 그러므로 각 입장이 (가)의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 응답하는 학생이 상황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각 입장에서의 평가는 달라질 것임. 이에 대한 정확한 채점이 이루어져야 함.
 - 세 가지 입장 각각에서 막연한 소득분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위 1%의 소득점유율 변화와 소득세율의 변화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함.
 - 소득분배 현상 자체만에 대한 해석으로 그친 경우 보다는, 소득세율을 통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해석을 같이 제공한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
- (나)의 입장에서의 해석
 - 단순한 공리주의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단순주장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나)의 입장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임.
 - 보다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나)의 공리주의와 이에 기반한 공공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즉, 사회의 효용총량)의 증진을 주장함. 그래서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나머지 계층들의 소득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전체의 효용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될 것임.
- 그러나 재분배와 관련하여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통한 재분배의 필요성과 전체 성장(파이)의 중요성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므로 정부의 개입의 영향은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효용증가와 상위 1% 계층의 경제활동 저하(예를 들어 근로 및 투자 유인 저하)로 인한 전체 파이 감소에 따른 효용감소의 크기에 대하여 학생이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전자(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가 후자(상위1% 경제활동 감소로 인한 파이 감소와 그로 인한 효용 감소분)보다 더 크다고 가정한다면, 정부의 소득세율 증가를 통한 재분배 시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개입이 될 것임. 하지만, 반대로 저소득층의 효용증가보다 전체 파이 감소에 따른 효용감소가 더 크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것임. 그러므로 공리주의와 공공경제학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에 대해 허용적인 한편, 정부의 재분배적 개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cautious) 입장을 보임.

● (다) 입장에서의 해석

- 단순히 시장에서의 분배가 바람직하고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단순 주장하는 서술은 낮은 점수를 부여해야 함. 시장의 분배가 바람직한 이유를 정확히 기술하는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함.
- 보다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다)의 하이에크의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였더라도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상위 1%에 더 많은 소득을 할당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스포츠 게임처럼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장메커니즘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임으로, 이에 대해 정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봄. 그러므로 이 입장에서는 미국의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재분배하려는 정부의 소득세율 증가 조치와 같은 시도는 오히려 인위적인 힘에 의해 자원을 할당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해석할 것임.

● (라) 입장에서의 해석

- 단순히 롤스는 평등한 분배를 정의로운 것으로 보았다는 단순 주장을 기술한 경우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부여해야 함.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평등분배를 선호하지만, 최하층에 이익이 될 경우에만 차등적 분배를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는 논리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보다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라)의 롤스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가급적 평등한 분배를 선호하고 또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의 최하층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만 이를 바람직한 것으로 선택한다고 봄. 그러므로 응답하는 학생이 미국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미국 최하위층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가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임.
- 학생이 만일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미국 최하위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정부의 소득세율의 증가를 통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반면, 학생이 만일 상위 1%의 소득점유율 증가가 미국 최하위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면, 현재의 상태는 바람직한 상태로서 정부의 소득세율 증가를 통한 개입은 불필요할 수 있음.

(3) (가)의 현상에 대해 분배정의의 차원에서 자신의 견해를 잘 제시하고 있는가?

- (나), (다), (라)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또는 이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여야 함. 분배 및 재분배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불가피함. 자신의 견해를 얼마나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개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함.

평가 등급 구간	평가 핵심 내용
1	(가)의 현상을 세 가지 입장 모두에서 정확히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2~3	(가)의 현상을 세 가지 입장 모두에서 정확히 기술하였으나,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각 입장에서 소득분배와 정부개입에 의한 재분배의 경우 모두를 정확히 해석한 경우 보다 높은 점수 부여

4~5	(가)의 현상을 세 가지 입장 중 두 가지 입장에서는 정확히 기술하고 나머지 하나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기술하지 못한 경우 - 각 입장에서 소득분배와 정부개입에 의한 재분배의 경우 모두를 정확히 해석한 경우 보다 높은 점수 부여
6~7	(가)의 현상을 세 가지 입장 중 하나에서는 정확히 기술하고 나머지 입장들에서는 정확히 기술하지 못한 경우 - 각 입장에서 소득분배와 정부개입에 의한 재분배의 경우 모두를 정확히 해석한 경우 보다 높은 점수 부여
8~9	(나)~(라)의 입장에서의 정확한 해석을 못한 경우 - (가)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한 경우 보다 높은 점수 부여

◇ 인문 공통 평가항목

- ▶ 이해력(40%): 제시문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 사고력과 적용능력(30%): 논지를 어떤 현상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서로 다른 해석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능력
- ▶ 독창성 (20%):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
- ▶ 구성 및 표현력 (10%): 문장표현,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